중국불교계 세계위상위해 총력 질주

中정부 중국불교 주도…
불교의 '공산화' 우려

중국 불교계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산시(Shaanxi)성 바오지(Baoji)에서 중국 불교사상 처음으로 제47회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제4회 세계불교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상하이, 마카오에 중국불교협회 지부를 각각 설치했다.

한마디로 중국불교계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자시의 위상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불교계의 기민한 행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스리랑카 불교계의 인터넷 뉴스 〈Lankaweb News〉 지는 "중국불교계가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 같다"며 "이는 중국불교의 '공산화'로 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중국불교계는 이번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 자국의 불교도 수는 6억7천5백만여 명, 비구 · 비구니 수는 24만여 명, 사원(사찰) 수는 4만 4천여 개로 추산하고 세계 최대(最大) 불상과 세계 최고(最高) 탑을 보유한 점에 주목, "중국불교는 부처님 지혜를 따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불교의 참 모습은 그런 숫자 나열의 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Lankaweb News〉 지는 "과거 중국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저우언라이(Zhou Enlai), 장쩌민(Jiang Zemin) 모두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불교를 키웠고, 지금의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불교계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중국을 불교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에 불교를 전래한 티베트는 부정하고, 한국, 일본 등에 중국불교가 전래된 사실만을 강조하며 아시아 불교 맹주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불교국가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산시(Shaanxi)성 바오지(Baoji)에서 중국불교사상 처음 열린 제27회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전경

中…WFB, 불교세계포럼도 개최
스리랑카 언론, 中 불교계 비판
"중국불교 참모습은
숫자 나열 이면에서 찾아야"

〈Lankaweb News〉 지에 따르면, 불교 맹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키우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시성 법문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가락 뼈가 발굴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중국 중앙정부는 법문사를 '세계 불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바오지 지방정부와 대기업들이 2002년 법문사와 그 주변 개발에 착수했다. 불교를 내세워 개발 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2009년에는 법문사 주변 공원 조성도 마쳤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불교국가에게 외면 당했고, '노다지'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Lankaweb News〉 지는 "산시성 법문사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불교국가의 공의를 함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불교정책은 소정의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Lankaweb News〉 지는 인도 콜카타(Kolkata)의 인도박물관(Indian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Kaala Chakra and On the Nalanda Trail' 전에 주목, 불교 종주국 인도 불교계의 행보에 주목,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

"인도 불교계가 인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도 각지에서 발굴된 돌, 나무, 은, 양피지, 비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유물 91점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Lankaweb News〉 지는 "이번 전시회는 불교라는 정신문화를 토대로 아시아를 하나로 엮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하고 "이번 전시회는 인도에 이어 상하이와 일본을 거쳐 한국, 몽골, 대만, 호주 등지에서 순회전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정토진종 하와이 정착 125주년

11월 17일 일본계 불자 모인 가운데 기념법회



브랜디 야마모토(Brandi Yamamoto)와 멜리아 오쿠라(Melia Okura)가 Kapaa Hongwanji 사원에서 지난 17일 봉행된 하와이 정토진종 도래 125주년 기념법회에서 촛불을 밝혔다.

하와이 카파 홍완지(Kapaa Hongwanji) 사원이 정토진종 도래 125주년 기념법회를 지난 17일 봉행했다.

〈Garden Island〉 지는 "이날 카파 홍완지 사원에는 4백여 명의 일본계 정토진종 불교도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영화 〈돌고래 이야기(Dolphin Tale)〉 무료 상영, 바자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토진종이 하와이에서 처음 법회를 봉행한 날은 1889년 11월 17일로, 이때 소류 카가히(Soryu Kagahi) 스님이 집전을 맡았다. 이후 스님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한 1,000여 명의 일본계 하와이인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와이 정토진종의 첫 사원은 1900년 11월 20일 개원됐다. 당시 하와이에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세운 사원이 있었는데,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일본인 이주 노동자들은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로하자는 데 뜻을 모아, 사원을 개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Garden Island〉 지는 "이는 당시 일본인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중심적 욕망과 감정에 속박이 없어야 한다'는 정토진종의 대명제를 실천한 것"이라며 "인종과 종파를 떠나 불교도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사원을 세운 것이 단초가 되어 당시 정토진종이 하와이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또한 〈Garden Island〉 지는 "당시 봉행된 법회가 바로 하와이에서 정토진종의 첫 발자국"이라는 에릭 마츠모토(Eric Matsumoto) 법사의 말을 인용, "125주년 기념법회에서 쏟아진 축하의 말은 하와이에서 정토진종을 처음 열고 지키는 데 한 몫을 해낸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불교도들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릭 마츠모토 법사는 이번 125주년 기념법회를 기획 · 진행했다.

"125년 전 당시 하와이에는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었고, 이는 일본계 이주 노동자의 삶을 더 척박하게 했다"고 말한 카주노리 타카하시(Kazunori Takahashi) 법사는 "따라서 당시 하와이에 첫발을 내딛은 정토진종 스님들은 일본인 이주 노동자의 생계를 돕는 데 주목했다"며 "지금의 하와이 정토진종은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이주 노동자 1세대의 이해에 힘입어 발전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Garden Island〉 지에 따르면 하와이를 방문한 정토진종 스님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노사 갈등을 중재했던 것은 물론 일본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본 문화를 잊지 않도록 경전을 강독하며 일본을 가르쳤을 정도로 하와이에서 일본인 이주 노동자의 생활과 정서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토진종 1889년 하와이 들어와
카가히 스님 日 사탕수수 노동자
1000명 돕기 위해 불교 포교 시작
현재 하와이 33개 사찰과 연대 맺어

한편 이날 125주년 기념법회에서 촛불공양을 맡은 하와이 정토진종 청소년부의 멜리아 오쿠라(Melia Okura · 사진 왼쪽) 회장은 "불교의 기원은 오래됐고, 전래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만나고 변화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힘이 125년 동안 하와이 정토진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Garden Island〉 지는 "정토진종계 카파 홍완지(Kapaa Hongwanji) 사원은 하와이 평화의 날(Hawaii Peace Day), 부처님의 날(Buddha Day), 자선 프로젝트(Project Dana) 등을 제정하고 실천하며 하와이 군도에 퍼져있는 크고 작은 33개 사원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와이에서 정토진종의 미래의 더욱 밝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은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 8주간 뇌 스캔 실험

美 하버드대 라자르 박사팀 실험 결과 밝혀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미국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11월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이 실험 참가자 16명을 대상으로 명상 여부에 따른 뇌 영역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명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자르 박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8주간 참가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 전후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통해 그들의 뇌를 스캔했다.

뇌 스캔 결과는 놀라웠다. 명상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8주 만에 MRI 스캔에 나타날 정도로 뇌에 큰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는데 변화한 부분은 뇌의 일부 회백질로 이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뉴런) 간의 연결이 이전보다 훨씬 조밀해지고 두터워진 것이다.

변화한 회백질로는 기억과 학습, 정서조절을 포함한 뇌 중심의 '좌측 해마'와 기억과 감정에 중요한 '후측 대상피질', 공감과 관련한 '측두 두정접합', 운동조절을 돕는 '소뇌'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명상을 수행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뇌스캔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라 라자르 박사는 "당신이 뇌의 이런 특정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그 부분은 성장한다"면서 "이는 실제적인 정신 운동으로, 마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뇌도 사용해야만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8주간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 보다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분인 회백질과 신경세포간 연결이 조밀하고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실험에 참가한 마티유 리카르 스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